

독일인이 본 한국낙농-유가공산업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있는 유럽 유가공 流通전문지인 Milch-Marketing誌는 92년 3월호에 한국의 낙농·유가공 산업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독일인이 우리업계를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므로 이를 번역게재한다.(편집자·주)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유제품소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칠때 많은 동아시아국가들은 급격한 판매신장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괄목할만한 신장을 한 나라이다. 이번호에서는 한국의 낙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한국은 80년대에 유제품의 소비가 특히 활발하여 90년에는 80년도보다 약 4.5배가 늘어난 1,879천톤의 우유를 소비하였다. 이 수량은 4,300만 인구 1인당 연간 44kg의 우유를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

료에 의하면 총소비량의 2/3 정도는 시유로 소비되고 있다.

시유외에 인기가 있는 제품은 近年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호상및 액상 요구르트이며 90년에는 연유 치즈 버터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세가지 제품은 90년에 각각 전년대비 64%, 49%, 48%의 폭발적인 소비증가율을 보였고 그외에 전지분유가 48%, 발효유가 24%, 탈지분유가 21%, 유음료가 16%, 조제분유가 14%, 시유가 11%씩 신장하였다.

이러한 유제품의 급신장 요인으로 이곳의 공인시장평가사는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한국이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구매력이 급격히 신장한 점이고, 둘째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되어 들어오는 다양한 제품공세로 인해 소비

자들이 이른바 서구화 경향을 띄게 된점을 들고 있다.

우유생산량 급신장

70~80년대의 한국의 우유생산은 가히 폭발적으로서 80년도를 70년과 비교하면 연간 약 45만8천톤으로서 782%의 어마어마한 신장률을 보였으며, 90년도를 80년과 비교하면 175만5천톤으로서 283% 신장했다.

이숫자는 젖소의 경우 90년도에 503,947두로 70년도보다 2,357% 신장한 수치이고 농가수는 33,277호로서 965%가 늘어난 수치이다. 동시에 농가호당 젖소 사육두수도 7.6두에서 15.1두로 늘어났으며 90년도에는 659농가가 50두이상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농가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70년대 후반부터 85년도까지

〈表1〉 한국의 연도별 원유 생산량 및 우유 소비량

(단위 : 천톤)

연도별	'65	'70	'75	'80	'85	'86	'87	'88	'89	'90
원유생산량	11	52	163	458	1,011	1,159	1,418	1,634	1,764	1,755
우유소비량	10	50	162	412	960	1,156	1,425	1,652	1,642	1,879

〈表2〉 90년도 한국의 유제품 수입

구 분	카제인	유장분말	유 당	탈지분유
금액(천불)	28,903	11,901	4,408	248
구성비	63.6%	26.2%	9.7%	0.5%

〈表3〉 한국의 분유 유당 카제인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85	'86	'87	'88	'89	'90
유당	5,130	4,722	4,721	5,006	5,681	6,217
카제인	4,146	5,313	5,508	5,326	6,036	5,760
유장분말(유아용)	7,157	6,326	6,800	8,000	8,800	9,398
유장분말(사료용)	2,990	3,938	3,943	6,000	5,925	4,700
탈지분유	2,432	297	603	390	400	200

낙농업의 기반을 다져놓았고 그이후 부터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인 경기도에 전체 농가의 44%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젖소수의 47%가 이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어서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원유가격은 1980년에 kg당 266원으로 73년도보다 255% 인상되었으며 80년도 이후에는 乳價인상이 둔화되었다. 90년에는 kg당 364원으로 80년도보다 37% 인상에 그쳤는데 이렇게 낮은 인상률은 정부의 물가정책이 주효하여 물가상승률이 낮았고, 또 畜協에서 외국으로부터 유당 카제인 분유 등의 제품을 적절히 도입하여 市場조정을 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유제품의 급격한 수요증대를 충족시킬 우유의 생산이 부족했으며

로 외국으로부터 분유 유당 카제인등을 다량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수입액으로 보면 90년도에 4550만불로서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 이러한 것은 그때까지 다른 유제품의 수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GATT협정(무역과 관세에 따른 일반협정)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순차적으로 유제품에 대한 시장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이점을 판매 포인트로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유럽업체와 합작 활발

한국은 지금까지 높은 관세율, 쿼타장벽 및 기타 여러가지 무역장애요소들을 내세워 유제품의 수입을 저지시켜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때 한국의 유업체와 제품의 생산·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기업

이 몇개 밖에 없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들 외국회사는 주로 제품생산에 대한 Know-how의 제공 및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自國 상표를 빌려줌으로서 한국의 파트너회사가 자국회사와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뉴질랜드의 NZDB, 스위스의 EMMI, 덴마크의 MD, 프랑스의 Sodiaal, 독일의 Milupa와 Strothmann 등이 진출해있다.

현재 한국의 판매성향과 시장의 단계적개방으로 미루어 볼때 유제품의 수입과 판매는 수년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일것으로 이곳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유럽의 유업체들 중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로서 그곳의 유제품 판매전문가는 단기간내에 한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이유는 현재 스위스나 뉴질랜드처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도 최근에 기술협약을 맺어 매력적인 동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서의 발판을 다지고 있지만 네덜란드도 그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판매력을 내세워 이에 가세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처리능력 크게 신장

우유소비의 급격한 증가와 병행하여 乳加工工場의 수도

〈表4〉 연도별 유가공장수의 변화

연 도	'65	'70	'75	'80	'85	'90
공 장	19개	28개	47개	49개	47개	48개

〈表5〉 연도별 우유처리능력의 변화 (단위 : 천톤)

연 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처리능력	802	875	911	1,112	1,124	1,285	1,399	1,735	1,962	2,802	2,572

급격히 늘어 70년에 28개이던 것이 80년에는 47개로 늘어났으며 이때부터 50개 이내로 안정되었다.

원유처리능력도 늘어나서 90년도에 2,572천톤으로서 80년도의 802천톤보다 3배이상 신장하였고 유가공장의 확장이

나 설비의 신설등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90년에는 49개의 유가공장이 있었고 한공장에서 연간 처리하는 우유의 양은 평균 5만톤이었다. 이중에는 연간 10만톤이상 처리하는 대규모 공장이 9개있고 1만톤이하 처리하는 소규모 공장이 9개있다. 또한 한국의 대부분의 유업체는 시유와 유음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7개공장에서 버터를 생산하고 있고 아이스크림은 6개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49개의 공장은 34개 유가공회사에 속해있고 7개의 대규모 업체는 모두 17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가공처

〈表7〉 한국 유가공장의 생산 제품에 따른 분포

생산제품	공장수
시 유	41개
유 음 료	34개
발 효 유 제 품	19개
치 즈	12개
분 유	11개
크 림	9개
버 터	7개
아 이 스 크 림	6개
연 유	5개

리 능력은 170만톤이상이다.

이것은 한국 전체 우유처리 능력의 약 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업체중 1위는 조합형태로 되어있는 서울우유로서 연간 처리능력은 472,036톤이고, 2위는 매일유업으로 331,420톤, 3위는 해태유업으로 252,580톤이다.

〈번역 : 宋俊起 주·건국우유 공장장〉

〈表6〉 한국 유가공장의 연간 처리능력에 따른 분포

연간 원유처리능력	공장수
>10만톤	9개
5만~10만톤	11개
2만~5만톤	12개
1만~2만톤	8개
<1만톤	9개
	계49개

